

구독자 수 0부터 버티며 살아남은 유튜버들의 삶과 꿈

“제가 생각하는 유튜버로서의 어려움은 첫째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따라와야 생활이 되니까요. 둘째로 자기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영상을 지인이나 보는 걸 꺼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셋째로 약플입니다. 약플을 일일이 신경 쓰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제삼자의 의견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채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죠. 저는 스스로 결심하면 끝까지 해보는 편입니다.”(본문 중에서)



유튜버가 말하는 유튜버

런업(김찬준) 지음

됐다. 현직 유튜버 런업(김찬준)이 15명 유튜버를 인터뷰해서 엮은 '유튜버가 말하는 유튜버'가 바로 그것. 책은 연애 멘토 김달, 영화 리뷰어 민호타우르스, 코미디 채널 운영

자 리도동동 등 15인의 유튜버를 만나 일과 일상과 관련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저자는 유튜버를 전문직 하나로 보고 분석했다. 장차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소년이나 예비사화인,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현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이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한다.

“여러 크리에이터와 그들의 채널은 주제도, 운영 방식도, 구독자의 성향도 모두 달랐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튜버 채널 중에서 완전히 똑같은 모습의 채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통용되는 단 한 가지 성공 공식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유튜버의 생계와 관련된 현실 문제 등도 나온다. 역대 연봉자부터 한 달에 5만 원도 벌지 못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업 유튜버의 평균 수입은 536만원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며 현실 중사자나 미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에게 수입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창작에 몰두하고 싶어 영화인을 포기하고 뛰어들어도 있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크리에이터 세계에 뛰어들어도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만난 유튜버들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재로서 시장이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초창기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고 시청자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다. 정책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는데다 연예인 진출까지 늘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모든 크리에이터가 통련하고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유튜버들이 제시하는 노하우는 있다. 한 유튜버는 “영상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채널의 지속성이나 유언장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강조한다. 또 어떤 이는 “장비나 편집보다 중요한 것은 내 콘텐츠에 얼마나 집중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대 사학과 4학년 윤동현씨가 제작한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 영상.

모든 유튜버들이 꼽는 가장 큰 고통은 약플이다. “100개의 선물을 받아도 단 1개의 약플을 받으면 큰 상처를 입고 의욕과 기운이 빠진다”고 언급할 만큼 약플은 치명적이다. 여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한 마음과 멘탈 관리가 필수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메시지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유튜버만큼, 세상 어딘가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고 강조한다.

<부기>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그리기 유튜버 김태호씨의 '주정뱅이(주뱅) 화가' 영상.

버스킹!

백민석 지음

백민석은 새로운 문학 경향을 이끌어온 소설가로 기이한 상상력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열었다. 이번에 그가 펴낸 '버스킹!'은 짧은 소설과 음악 에세이를 결합한 이색적인 형식의 작품집이다.

작가가 이탈리아에서 봤던 버스킹 공연이 모티브가 됐던 터라 흥미로운 글이 다수 수록돼 있다. 책에는 이상기후로 종말을 앞둔 미래사회, 성소수자를 검거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귀가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 등 등장인물과 배경이 다양하다. 모두 16개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소설과 음악, 재기발랄한 상상이 빛어낸 결과물이다.

오랜 공백 끝에 문단에 등장한 작가는 마치 그 공백을 창작의 에너지로 충전한 것처럼 다양한 작업을 풀어냈다. 그로테스크한 종말의 세계를 가감없이 펼쳐낸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어느 날 벌레로 변해버린 아내를 둔 미투사건의 가해자(‘물곰 가족’), 이상기후로 종말을 앞둔 세계(‘마지막 수업’), 디지털이 장악하여 지도도 양초도 라이터도 사라져버린 재난사회(‘도망쳐라, 사랑이 쫓아온다’) 등을 배경으로 디스토피아의 장면을 형상화한다.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버스커들의 컬러 사진, 작가가 사랑한 앨범에 대한 짧은 에세이가 어우러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훌륭한 작품을 남긴 예술가가 가난하게 살거나 불행하게 산 경우는 많다. 우리는 그런 예를 꽤 알고 있다. 예술은 꼭 부나 당대에서의 성공과 함께 가지 않는다. '버스킹!'은 바로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내 애정(과 슬픔과 존경)을 담은 책이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카스테라와 카스텔라 사이

고영 지음

미식과 먹방의 시대, 아니 미식과 먹방의 흥수 시대다. 많은 채널에서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전파를 탄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한 끼 식사에 대한 열정은 무엇에 비할 데 없이 강렬하다.

미식과 먹방의 시대, 밥 한 끼를 위한 대중문화 현상을 담은 책이 발견됐다. 음식문화 연구자 고영의 '카스테라와 카스텔라 사이'는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먹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음식문화사 백 년의 종격을 들여다보며 오늘의 밥 한 끼를 생각한다.

저자는 최근 백 년 사이 변해온 음식문화사를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그 과정에서 음식은 거저 오지 않는다는 사실과 만난다.

“최근 백 년 사이 세상이 바뀌었다. 사람의 감각도 바뀌었다. 실내로 들어온 연료, 상하수도, 전기 동력과 조명에 힘입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먹으면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 음식평론가 노릇을 하게 되었다.”

다양한 음식문화사 탐구는 문헌과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다. 참고한 문헌들은 옛날 조리서부터 소설, 시, 신문기사, 잡지기사, 영화, 광고 등에까지 걸쳐 있다. 저자에 따르면 대체로 “먹는 소리”들과 “먹는 행위” 묘사들이 음식의 문화와 역사, 정체를 말해준다. 그러나 흑역사 같은 음식질 일화나 탐식의 허풍, 먹방에 가까운 고담은 경계한다.

책에는 한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는 최악이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외국인에게 칭찬받겠다는 강박’ 아니냐는 누군가의 말에 수긍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식의 본질은 뜬구름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 제일선에 있는 찬모들을 바라보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도밭>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산, 자네에게 믿는 일이란 무엇인가

윤춘호 지음

다산(荊山)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에 서학, 즉 천주교를 수용한 가문의 일원이었다. 셋째 형인 약종은 신유박해 때 서서문 밖에서 순교했고, 둘째 형 약전도 서학에 깊이 빠졌다. 만행 약현은 조선교회 참상을 알리는 백서를 쓴 황사영을 사위로 뒀다. 정약용 누이는 한국인 최초 영세자 이승훈(1756~1801)과 혼인했다. 정약용은 이승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동지였고 처남이었다.

이승훈을 주인공으로 삼은 '다산, 자네에게 믿는 일이란 무엇인가'가 출간됐다. 이승훈은 18세기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1호 천주교 신자였고 조선 천주교회 설립의 주역이었다. 그는 1801년 45세에 서학을 들여오고 이를 믿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다.

SBS 기자로 일했으며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인 저자 윤춘호는 책에서 첫 한국인 영세자이자 다산과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였던 이승훈의 삶을 통해 믿음의 의미를 묻는다.

책은 처형을 앞둔 이승훈이 다산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한다. “여보게, 다산! 방금 전에 자네는 살아남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네”로 시작한 편지는 “한때의 동지로서 말하노니 부디 부끄러움을 아시게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그가 사형집행 직전에 정약용에게 남긴 유언같은 글이다.

책은 조선 사회에서 선택받은 자였고, 그 체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던 그가 왜 천주교라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믿음이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푸른역사>1만5000원

/전재재 기자 ejf621@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REMEMBER & HISTORY

- 1인 크리에이터, 인기·수익 양 날개로 비상
- 나만의 콘텐츠야야 뜬다
- 크리에이터 꿈꾼다면 눈과 귀를 열어라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성과 궁전의 예술도시 독일 드레스덴

클락, 문화현장! 문화감성이 발효되는 공간 담양해동문화예술촌

강재운 시인의 남도 성과 토속음식-우여수 남도의 별미 '갑오징어 돌미나리 초무침'

2019 문화계 결산

- 문학: 조정래, 송순, 동주문학상 등 의미있는 수상
- 미술: 소풍 전시로 각광받은 디자인비엔날레
- 공연: 세계스포츠 축제 무대로 동성했던 여름 공연

우리 감성 무르익은 소리꾼 장사익

“노래에 인생 스며들면 깊은 울림”

문화계 화제 예술의 거리 재생 내건 '미로센터' 개관

ACC '공작인: 현대조각과 공예 사이'전

유연준의 도시건축! 모닥불, 건축 빅뱅 불 지폈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바우하우스의 부처' 클레, 재밌는 예술교육 틀 다졌다

베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아역 배우의 명암과 현주소

승년 기획 안녕 2019, 해넘이 해맞이 명소

영암 한국트롯가요센터에서 만난 하춘화 K리그2 2019 우승 이문광FC 감독 박진섭

역사와 예술의 불꽃 보성 빛 여행